

2023 대림 판공 문제집

시노달리타스

Synodalitas

성령과 함께 걷는 하느님 백성

세계주교시노드의 목적은,
참다운 시노드 정신으로
제삼천년기 교회의 길을 따라서
꿈을 싣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가요 우리!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 본 당 명 :
- 구역 · 반 :
- 성명 · 세례명 :

발 행 처 :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목국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전화번호 : 062) 380-2832 FAX 062) 380-2815
홈페이지 : www.gjcatholic.or.kr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일러두기

- (1) 광주대학교구 <2022년 대림 판공 문제집>에 인용한 본문은,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가 편집하고 발행하는 학술 등재지 『神學展望』 208호(2020년 3월에 게재된 최현순 교수(서강대)의 논문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일정 부분을 신학연구소의 승인을 받고 발췌한 것이다.
- (2) 2021년 10월에 개최된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공동합의성’을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로 표기- 논문에 표기된 ‘공동합의성’을 ‘시노달리타스’로 수정하였다.

참고문헌

신학전망 208호(2020)

시노달리타스¹⁾ 실현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저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가는 길

저자 : 최현순

1) 원문에 표기된 ‘공동합의성’이라는 용어를 2021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명기하였음

초대하는 말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은 3천년기 교회로부터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길이다.” 2015년 ‘교황청 주교 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현대 교회가 걸어야 할 길로서 시노달리타스를 제시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교황이 전하고자 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구성적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대현장이 된 이 담화는 학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사목 현장에서도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노달리타스의 개념은 현대의 민주적이고 공동참여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톨릭교회의 화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칫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민주화’, 의회주의의 실현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단지 교회 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것으로 축소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 시노달리타스와 민주주의 사이에는 어떤 교집합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둘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집은 지난 사순시기 판공 문제집에서 접했던 교황청 문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연장선상에서 ‘신학전망’에 수록된 논문을 토대로 시노달리타스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가운데 하나이면서, 현재 우리 교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교구 사목 평의회’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 본연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시노달리타스적인 교회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어떤 인식적·실천적 기초를 쌓아야 할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시노달리타스 : 개념 이해	대림 제1주간
II. 주체들의 교회 : 분화된 유기적 공동 책임성	대림 제2주간
III. 사목 평의회의 교회론적 의미	대림 제3주간
IV. 시노달리타스의 태도	대림 제4주간

I. 시노달리타스: 개념 이해

1. 성경과 역사 안에서 나타난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속에 함축된 ‘함께 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시노달리타스적 공동체이다. 구약에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방식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느님은 모세가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백성 가운데 원로들을 세우신다(참조: 탈출 18,13-27; 민수 11,16-17). 이것은 원로들이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몫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현대 교회가 지향하는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모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신약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이다(사도 15,1-22 참조). 이 본문은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이 알려 주신 길을 가는 데에 있어 어느 한 사람이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러나 ‘분화된’ 책임을 갖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기준적 좌표를 보여준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할례 문제를 논하기 위해 ‘사도들과 원로들’이 모인다(6절 참조). 논쟁을 거듭한 후 베드로가 나서서 연설하고(7-11절 참조), 그의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잠잠해진다(12절 참조). 이어서 바오로의 연설이 이어지고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유다와 실라스를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한다(22절 참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는지가 잘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 사건의 직접 목격 증인으로서 그 고유한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연설에 온 회중이 잠잠해진다. 이 공동체에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원로들도 있었고, 교회의 중요한 일의 결정에 사도들과 함께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에 온전히 수동적이거나 방관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성경은 ‘사도들과 원로들, 그리고 온 교회’가 ‘결정하였다’고 말한다. 권위에 있어 일종의 질서가 있되,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현



대 가톨릭교회에서 ‘함께 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현재의 시노달리타스 개념은 20세기 이 공의회의 가르침, 그리고 사실 공의회 자체의 활동 방식으로부터 발전되고 정립된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시노달리타스 개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체가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모델이다. 이 공의회는 주체는 사실 상 모든 신자들이었다. 공의회에는 주교들 외에도 수도자(129명), 신학자(460명), 평신도, 여성,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교인들이 참여했다. 문헌들의 초안은 주교들의 발언(2212회)과 서면 제안(4361회), 토론(516시간)을 기초로 신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정하였으며 16개의 최종 문헌이 나오기까지 총 527회의 투표가 이루어졌다. 공의회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참된 상호 경청의 시간’이었고, 공의회는 이러한 활동 자체는 곧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모습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활동 자체가 보여 준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모습은 무엇보다도 교제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잘 드러난다. 공의회는 교회를 교제 제도에 기초해서 또 그것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교회’ 곧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하였고, 교제 제도를 하느님 백성 ‘안’에 위치시켰다. 교황의 수위권을 약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교황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교황과 주교들로 구성된 주교단(Collegium episcoporum) ‘안’에 있으며, 형제인 주교들과 하느님 백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교회현장』 22항 참조).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가 고대로부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든 ‘공동으로 결정하고 많은 이의 의견을 숙고하여 판단’해 왔음을(『교회 현장』 22항 참조) 강조한다. 특히 ‘주교단’의 개념과 그 권한에 대한 선언은(『교회 현장』 22항 참조)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이끄는 군주제라기보다는 ‘함께 결정하고 함께 걷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공의회 문헌에서 주교와 사제들의 관계에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참조: 『교회 현장』 27항;

『사제 교령』 7항; 『주교 교령』 11항). 공의회는 교구 사제 평의회 설치(『주교 교령』 27항 참조), 본당, 본당 간, 교구 간 또는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사목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평신도 교령』 26항 참조), 교구 사목 평의회 설치를 권고하였다(『주교 교령』 27항 참조). 공의회 이후에는 대륙별 및 국가별로 주교회의 구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들어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려는 연구가 활발해졌고, 특히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 개념을 강조하면서 국제신학위원회는 시노달리타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하는 것이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항) 따라서 시노달리타스는 단지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인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삶과 활동의 방식’ 곧 교회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림 제1주간 문제

1.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속에는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세 글자)

답 : _____

2. 다음 예시의 성경구절에서 ‘원로들에게 모세의 영을 조금 덜어내어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는, 원로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가?
(□□적, □□적)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일흔 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민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네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민수 11,16-17).

답 : ① _____ ② _____

3.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기준적 좌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① 능력을 갖춘 선택된 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 ②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 ③ 공동체가 함께 그러나 분화된 책임을 갖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 ④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

4. ‘할레 문제’를 다루는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보이는 초기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① 온 회중이 잠잠해진다.
- ②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유다와 실라스를 안티오키아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 ③ 사도들과 원로들이 모인다.
- ④ 바오로의 연설이 이어진다.
- ⑤ 논쟁을 거듭한 후 베드로가 나서서 연설한다.

답 : _____

5. 사실상 모든 신자들이 참여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활동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참된 상호 ()의 시간이 되어야 함

답 : _____

6.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모습을 보여 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해한 교계 제도의 개념 무엇인가? ()

- ①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하였고, 교계 제도를 하느님 백성 ‘안에’ 위치시켰다.
- ② 교회를 불평등한 완전한 사회로 인식하면서 피라미드식 교계 제도를 추구하였다.
- ③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이해하면서도, 교계 제도를 이와 구분되는 ‘밖에’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로 받아들였다.
- ④ 교회 최고 권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과 구분되는 교계 제도를 갖추었다고 설명한다.

7. 국제신학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 자체를 가리킨다.

답 : _____

II. 주체들의 교회: 분화된 유기적 공통 책임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불평등 완전 사회’로서의 교회론에서 친교의 교회론으로, 교제 제도 교회론에서 하느님 백성 교회론으로 전환했다. 교회를 특정 지체들을 중심으로 혹은 그 일부 지체들을 기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전체(universitas fidelium)로서 보았다. 이러한 교회 이해는 세례성사로 인한 하느님 자녀로서의 동등한 품위, 종속과 지배가 아닌 형제애의 우선성에 기초한다.

1. 구성원들의 근본적 동등성: 하느님의 자녀 됨의 품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라는 같은 품위를 누린다는 것이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적 예물을 바칠 때 지체들 간의 어떠한 차별도 없다. 하느님 백성의 보편 사제직에 대한 선언에서 공의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동등성이다.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됨이라는 품위는 하느님 백성 안의 모든 지체들이 형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 형제애가 그리스도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여기에 상호 동등성을 넘어 ‘상호 섬김’의 자세로 제자들을 초대하신다(마르 10,42-45 참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몸소 모범을 보이신 당신 제자 됨의 실존 방식에서 교회가 여타의 다른 인간 공동체와 같을 수 없음이 확인된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2. 유기적이며 분화된 공통 책임성

1) 분화된 공통 책임성

‘신앙의 진리에 동의하고 이를 삶에 적용시키며, 신앙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을 배척하는 직관적 능력인 이 신앙 감각’은 하느님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증언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게 할 뿐 아니라, 교도권과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예언자적 수행을 가능케 한다.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과 교도권의 고유의 역할 및 상호 호혜적 관계를 통해 하느님 백성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교회의 삶과 활동 방식



이 곧 시노달리타스인 것이다.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신앙 감각과 교도권의 관계에서 보듯이, 공통의 품위를 가지고 공통의 활동을 하는 이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저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도 지체들 안에는 분명히 직무의 다양성, 권위의 질서가 존재한다.

교회 안에는 직무의 다양성과 함께 은사의 다양성도 존재한다(1코린 12,1-30 참조). 교회가 천교의 공동체, 일치의 공동체이지만 이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 일치의 모범을 따라 다양성을 내포한 일치이다. 일치와 다양성이 역동적으로 공존할 때 그 교회는 보편성(catholicity)을 가지며, 보편성은 교회의 본질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교회 현장』 13항 참조). 직무와 은사의 다양성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모은다. “은총과 봉사와 활동의 다양성 그 자체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은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1코린 12,11)이기 때문이다”(『교회 현장』 32항).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일치는 ‘분화된 일치’(differentiated unity)인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의 공통 책임성은 구성원들 각각이 저마다의 책임의 양과 정도가 다른 ‘분화된 공통 책임성’(differentiated co-responsibility)이다.

2) 교계 제도: 유기적 공통 책임성의 보증

교회 안에서 직분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의 위계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교회 안에서 권위와 권한은 이중적 관계 안에서, 곧 그리스도론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해된다. 먼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권위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권위의 수행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방법에 따라, 곧 그리스도 자신의 방법인 ‘섬김’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마르 10,42-45 참조). 그리고 권위의 행사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내 권위는 교회와 분리되어, 교회의 ‘밖’ 혹은 ‘위’가 아니라 교회 ‘안’에 위치하며, 오직 교회를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세워진 권위는 백성들의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 여정을 돕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서, 콩가르(Y. Congar)의 말을 빌리자면 하느님의 백성의 ‘봉사’를 ‘조직화’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직무자가 받은 권위의 이러한 의미로부터 하느님 백성의 공통 책임성은 모든 지체들이 저마다의 책임성을 갖되 그 책임의 정도와 종류가 다른, 그러면서도 그 책임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책임성’ (organic co-responsibi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는 그 ‘전체가 직무적인 공동체’ 이고, 모든 구성원들이 저마다 제 몫의 책임을 받아 이 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한다. 여타의 인간 사회와 같은 종류의 사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몸인 교회 안에서 교계 제도는 다양한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교계 제도는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실현의 ‘보증’ 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교계 제도가 이 몸의 구조적 요소로서 전체 몸의 사명 수행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교계 제도가 결여될 수 없다. 목자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느님 백성 전체, 곧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의 전체’ (universalitas fidelium)가 수행하는 것이다.



- 불평등 완전 사회 → (①)의 교회론 교계 제도 교회론 → (②) 교회론

① 왕직 ② 사제직 ③ 예언자직 ④ 봉사자직

6. 신자들과 공적 직무자들은 공통의 품위를 가지고 공통의 활동을 하면서도 저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 관계 안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직무의 (), 권위의 ()

답 : ① ②

7. ‘일치와 다양성’ 이 역동적으로 공존할 때, 교회는 자신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인 ‘무엇’ 을 갖게 되는가?

답 : _____

8. 합창단 공연을 보게 되면, 구성원들이 각자 저마다의 책임의 양과 정도에 따라 곡의 완성이 라는 공통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구성원의 역할이 결여될 경우 화 음은 망가지고 노래는 엉망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구성원은 합창의 완성에 일정한 책 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직분과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교회에 대 입하였을 때, 교회는 하느님 백성 각자의 직무의 다양성에 따라 ‘무엇’ 위 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답 : _____

9. 교회는 권위와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론’ 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 안에 세워진 권위가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긴다. 신학자 쿡가르 는 이에 대해, 하느님의 백성의 ‘()’ 를 ‘조직화’ 하는 ()라고 말하였다. 괄호 안에 들 어갈 공통된 말을 쓰시오.

답 : _____

10. 교회는 전체가 직무적인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저마다 제 몫의 책임을 받 아 이 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하는 ‘유기적 책임성’ 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은/는 다 양한 지체들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워졌기 때문에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실현 의 ‘보증’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답 : _____

III. 사목 평의회와 교회론적 의미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은 교회의 전체 삶과 활동에서,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신앙 감각과 교도권의 상호 호혜적 관계의 역동성 안에서 실현된다. 그리고 그러한 ‘함께 감’의 삶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1. 다양한 수준에서의 시노달리타스 실현 및 제도 설립

시노달리타스적 역동 안에는 하느님 백성 전체를 포함하는 공동체적 측면, 주교 직무 행사에 관련된 단체적(collegialis) 측면, 그리고 교황의 수위적 직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노달리타스’를 명시적으로 정의한 것은 아니나, 교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설립하도록 규정한 제도들은 이후 발전하게 될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실현하는 도구들이 된다.

2. 사목 평의회 설치의 교회론적 당위성

공의회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 곧 수도자와 평신도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협의체, 곧 사목 평의회(Consilium pastorale)를 구성하도록 권고한다. 시노달리타스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주의’ 혹은 ‘다수결주의’를 교회에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실존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한 것으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첫 자리에 놓으며, 빵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가는 이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사명 수행은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지체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함께 공통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더욱이 현대 교회와 사회가 처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짐은 주교 혼자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모두 떠넘길 수도 없다. 모세의 짐을 나눠지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수행, 복음화의 구체적 실현인 사도직 활동에 있어 목자와 평신도 간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며, 그러한 협조를 위한 기구가 평의회이다. 목자들은 삶의 현장에 있는 평신도들의 협력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직무, 곧 백성을



목적지로 이끌어야 하는 짐을 더 수월하게 질 수 있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결정에 능동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할 경우 훨씬 더 힘차고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3. ‘자문’의 신학적 의미

평의회(Consilium pastorale)가 하는 역할은 그 명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자문(Consilium)이다.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토론한 후 교구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교구장에게 제안한다. 교구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의 자유이다. 교회법은 평의회가 “건의 투표권만을 가진다”(교회법 제536조)고 규정한다. 교회 안에서의 자문은 ‘순전히’ 자문인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제신학위원회는 ‘자문’의 의미와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문’의 의미는 사회학적 의미가 아님을 강조한다. 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decision making)은 목자 없이 되지 않으며, 목자는 모두의 협력 없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결정 과정과 결정 자체, 이 두 과정 모두에서 목자와 신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목자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격적으로 그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자문 기관은 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그 최종 책임은 사목적 권위를 받은 목자가 진다.

4. 평의회: 공동 식별의 탁월한 장

결정 과정(decision making)에 속하는 평의회 활동은 이 과정이 공동체의 공동 식별의 탁월한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공동 식별은 “시노달리타스의 고도의 실현”이다.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인 교회에는 영적 식별을 통한 개인의 여정을 포함하면서, 교회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자신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을 검토하고 식별하며, 시대의 징표를 읽으면서 어떤 것이 성령의 움직임인지 분별해야 한다. 한편 식별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나 성령의 선물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느님의 백성 안에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을 일깨워 주시어 무엇이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인지

를 파악하여 올바른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또한 그릇된 것은 배척하도록 하신다.

식별이 성령의 선물이고, 일종의 직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된다고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순전히 수동적인 상태로 머무는 것은 아니다. 식별은 “터득하는 것”으로서 식별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고, 시대의 징표를 읽는 수고를 해야 하며, 특히 공동체적 식별은 지체들 사이의 친교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식별은 ‘목자와 결합된 신자 전체’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식별에서 ‘상호 경청’은 필수적 조건이다. 이 상호 경청은 단순히 목자이든 신자이든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에 그리고 다수의 동의를 찾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데에,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시대의 징표를 인간적 의견이 아닌 복음의 빛으로 검토한다는 데에 그 근본적 특징이 있다. 교회 공동체의 이 ‘식별’의 과정은 ‘시노달리 타스적 교회’의 활동방식이 탁월하게 실현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공통 식별을 실현하는 탁월한 제도가 바로 평의회 제도인 것이다. 평의회에서 목자와 신자는 함께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빛으로 시대의 징표를 읽고 교회가 받은 복음화 사명의 실현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대림 제3주간 문제

1. 시노달리타스는 어떤 방식으로 실현 되는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교회의 전체 삶과 활동에서, (①)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신앙 감각과 (②)의 상호 호혜적 관계의 (③) 안에서 실현된다.

답 : ① ② ③

2.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무엇’ 을 담보해주는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함께 감’ 의 삶이 ()적이고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준다.

답 : ① ②

3. 시노달리타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수도자와 평신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구마다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협의체는 무엇인가?

답 : _____

4. 다음 중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 ① 단순히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으로써 의회주의 혹은 다수결주의에 비견되는 제도이다.
- ② 교회의 실존 방식,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 ③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첫 자리에 놓으며, 하느님의 백성답게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 ④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지체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함께 공통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

5. 사목 평의회의 설치가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 ① 사도직 활동에 있어 목자와 평신도 간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
- ② 목자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 ③ 목자는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④ 평신도들은 어떤 결정 과정에 있어서 더 능동적이고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6.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교회법에 따르면 평의회는 () 투표권만을 가진다(제536조)”

답 : _____

7. 시노달리타스적인 결정 과정 안에서의 역동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 ① 결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목자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② 자문 기관은 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그 최종 책임은 사목적 권위를 받은 목자가 진다.
- ③ 결정 과정과 결정, 이 두 과정 모두에서 목자와 신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 ④ 목자는 어떠한 결정도 독단적으로 내릴 수 없고, 사소한 일이라도 의견을 물어야 한다.

8.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결정 과정에 속하는 평의회 활동은 공동체의 공통 ()의 탁월한 실현이다.”

답 : _____

9. 다음 중 식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식별은 터득하는 것으로서 식별의 과정은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 ② 식별은 공동체적 차원에 한해서만 의미가 있다.
- ③ 식별의 과정은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활동 방식이 탁월하게 실현되는 방식이다.
- ④ 식별을 통해서 시대의 징표를 읽게 되고, 어떤 것이 성령의 움직임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10. 공동체의 식별에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답 : _____

IV. 시노달리타스의 태도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념이라도 무용지물이 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다.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평의회 같은 제도 또한 그것에 필요한 적합한 환경과 마음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형식에 그칠 뿐이고, 때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마치 시노달리타스 실현이 다 이루어진 줄 착각하게 만든다.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개념을 ‘교회의 민주화’나 ‘의회’ 개념과 동일시 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시노달리타스적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에 목자와 신자가 하나 되어 귀 기울이고, 함께 그것을 식별한 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저마다 제 몫을 하되 함께 가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 목자이든 신자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말씀이 간과된 상태에서 이루지는 교회의 삶과 활동은 너무 쉽게 일반적인 인간 사회의 그것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은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오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말씀과 성찬이 간과된 채 ‘함께 합의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교적 공동체가 아니다. 성령, 말씀, 성찬례, 세 가지는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실현의 뿌리이며 기둥이다.

이와 함께 평의회 제도를 비롯하여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교육의 중요성이다. 특히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될, 그리고 선출된 이들의 교육은 필수적인데, 이것은 사실 ‘먼 교육’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계시 진리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모든 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평신도들은 계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치밀한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간청하여 지혜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교회 헌장』 35항).

시노달리타스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태도에 있어서 일종의 ‘시노달리타스적 스타일’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먼저 상호 존중과 환대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되 동시에 다른 이도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지체가 각자 제 자리에서 저마다 고유의 길을 가되, 함께 걸어가는 역동성을 보일 때 이 공동체는 참으로 시노달리타스적일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 역동성이 살아있기 위해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대화란 단순히 친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는 신앙에 의해 또 신학적 동기에 의해 야기되고 성령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치 하느님의 삶이 ‘대화적 삶’이요, 하느님은 삼위를 가지셨지만 대화와 사귀를 통하여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듯, 성직자와 평신도는 서로 간의 진정한 대화와 사귀를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다.”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이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태도는 관대함과 인내이다. 함께 가는 여정에서 모든 이가 강건하지는 않다. 넘어진 이의 상황도, 서 있는 이의 상황도 일차적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 참조)와 관련해서 누구도 자신이 ‘형’이라고 자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스타일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은 ‘형제애’이다.



대림 제4주간 문제

1.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개념을 ‘교회의 민주화’ 나 ‘의회’ 개념과 동일시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답 : _____

2. 시노달리타스적 교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아닌 것은? ()

- ①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 ② 선출된 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계시 진리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 ③ 모든 지체들이 태도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환대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시노달리타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께 의지하고 매진해야 한다.

3. 시노달리타스적 교회 실현의 뿌리이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요소는 무엇인가?

답 : ① ② ③

4. 어떤 공동체가 참으로 시노달리타스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각 지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각자 제 자리에서 저마다 (①)의 길을 가되, (②) 걸어가는 역동성을 보여야 한다.

답 : ① ②

5. 시노달리타스적 교회로 나아가는데, 하느님의 삶을 닮고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이루면서, 각 지체 간의 유기적 역동성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답 :

6.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모든 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①)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평신도들은 계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치밀한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간청하여 (②)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교회 헌장』 35항).

답 : ①

②

7. 시노달리타스적 교회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답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